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기후 주간을 맞아 냉매로 사용되는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원인 수소불화탄소 감축을 위한 신규 규정 최종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

*주지사는 또한 300만 달러 규모의 차세대 HVAC 혁신 과제를 시행하여 HFC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냉매를 개발하여 사용을 확대*

*HFC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연방 정부의 무관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뉴욕주는 다른 주가 활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여 지속가능 부문의 리더십 발휘*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대안적 난방 및 냉방 방식 개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서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 HFC) 사용을 크게 줄이고 뉴욕주 환경 및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새로운 규정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HFC는 냉장고, 에어컨 및 소비재 에어로졸 제품과 같은 가정용 및 상업용 냉매에 사용되는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오늘 규정의 최종안을 완성했으며, Trump 행정부 산하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시행하지 못한 중대 신규 대안 정책(Significant New Alternatives Policy)을 채택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계속 도입하는 가운데, 연방 정부의 지도자들은 입증된 과학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기후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해한 화학 물질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를 선도하는 행동을 통해 뉴욕은 제조업체들이 우리의 건강과 귀중한 천연 자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더욱 우수하고 깨끗한 제품을 사용하고 선구적인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채택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보건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 부문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후 주간(Climax Week)을 맞아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는 사업체와 기업을 위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체 에너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부터

더욱 나은 방향으로 재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 세대와 우리 지구의 미래를 위해 야심찬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더욱 청정하고 깨끗한 재건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새롭게 채택한 규정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가 추진하는 3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이니셔티브인 차세대 HVAC 혁신 과제(Next Generation HVAC Innovation Challenge)와 함께 시행됩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건물에 새로운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오늘의 발표는 주정부의 야심찬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의 시행을 지원하고 뉴욕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퍼센트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경제 전반의 탄소 중립성을 완성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뉴욕주의 2020년 기후 주간 선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신규 규정

본 규정은 신형 또는 개조 식품 냉동 장비, 대형 공조 장비(또는 냉각기) 및 자동 판매기에서 특정 HFC 냉매의 판매, 설치 및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새로운 소비재 제품에 에어로졸 압축가스 및 발포제로 사용되는 물질을 금지합니다. 금지 조치는 향후 4년에 걸쳐 시행되며, 2030년까지 HFC 배출량을 예상 사용량의 20 퍼센트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총 1,700만 톤 분량의 탄소 배출가스에 해당합니다.

뉴욕의 HFC 규정은 오존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HFC가 사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을 줄이기 위해 몬트리올 프로토콜(Montreal Protocol)의 키갈리 개정안(Kigali Amendment)를 비롯한 파리 기후 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의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C)는 [미국 기후 연맹\(U.S. Climate Alliance\)](#)에 참여한 동료 주정부와 협력하여 규정을 만들고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니다. 연방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후에, 뉴욕은 이 협약의 목표를 유지하는 미국 기후 연합(U.S. Climate Alliance)을 구성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및 워싱턴 주와 힘을 모았습니다. 미국 기후 연합(U.S. Climate Alliance)은 미국 국내 총생산(U.S. gross domestic product)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들의 주지사 25 명이 동참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 및 콜로라도와 함께 규정 최종안을 마무리하였으며, 약 열 개 주정부가 법을 도입하거나 EPA 프로그램에서 탈퇴하여 위험 오염물질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HFC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HFC 사용으로부터 전환이 일어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HFC 대체재를 생산하는 미국 기반 사업체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 뉴욕의 리더십으로 인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안 공지(Notice of Adoption)가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제출되었으며, 2020년 10월 14일 주 등록부(State Register)에 기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규정은 제정 30일 후에 발효됩니다.

**DEC 커미셔너 겸 기후 행동 위원회 공동의장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는 2018년 DEC에 수소탄화불소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내린 이유는 고밀도 오염물질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뉴욕의 성과를 무산시킬 것이라는 것을 주지사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채택은 더욱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뉴욕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 차세대 HVAC 혁신 과제

NYSERDA의 다단계 차세대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300만 달러의 기금은 현재 사용되는 물질보다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냉매를 개발하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과제 사업은 첨단 HVAC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 상용화 및 시연하고자 하는 청정 에너지 회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고급 냉매 모니터링 및 누출 감지 솔루션, 새로운 압축기 기술, 현장 누출 수리 솔루션, 신기술의 시연 및 평가, 냉매 회수 및 재활용, 산업 개발을 비롯해 교육, 시장 인식 및 제품 요구 사항에 대한 업계 협력, 환경적 영향이 적은 냉매의 개발 전반 등의 부문에서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러한 건물은 발전 및 연료 연소를 통해 뉴욕주 온실가스의 45 퍼센트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컨, 난방 펌프 및 냉동 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이렇게 유출될 경우 기후 변화를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의 경우, 이산화탄소보다 1,000~2,000배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난방 펌프 사용 및 냉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친환경적인 냉매 사용의 필요성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냉매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인화성, 유독성, 성능 등의 이유로 인해 널리 활용되지 못하며, 대체재 사용 확대를 위한 기술과 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차세대 HVAC 혁신 과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 건물 및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활동을 위해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려고 뉴욕이 취하는 접근 방식의 일환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난방 펌프와 같은 전기화 솔루션을 보다 친환경,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어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가 이러한 비화석 연료 가열 및 냉각 솔루션을 더욱 폭넓게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성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을 촉진하여, 뉴욕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전기와 건물에 대한 연료 수요를 비용 효과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입니다. 과제 사업 1단계에서 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HVAC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500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NYSERDA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6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뉴욕주 전역에 위치한 건물의 탈탄소화를 추진합니다.

**NYSERDA의 사장 겸 최고대행자 대행인 Doreen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환경 냉매는 가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이는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격차가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세대 HVAC 과제는 우리가 HFC 사용을 제한할 방법을 찾는 가운데 시장의 변화를 견인할 것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의 야심찬 기후 목표 달성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건물의 냉난방을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사업 과제 신청은 2020년 11월 17일에 마감될 예정이며, 지원금 지급은 2021년 1분기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자금 지원에 대한 추가 정보 또는 기업이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https://portal.nysderda.ny.gov/CORE\\_Solicitation\\_Detail\\_Page?SolicitationId=a0rt0000006nDncAAE](https://portal.nysderda.ny.gov/CORE_Solicitation_Detail_Page?SolicitationId=a0rt0000006nDncAAE)을 방문해 주십시오.

## 뉴욕주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계획

HFC 사용의 단계적 감축은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어젠다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해당 어젠다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퍼센트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67개에 대한 39억 달러의 투자,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35년까지 연안 해안 풍력 9,000 메가와트 개발, 2011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800퍼센트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 퍼센트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의 이익의 최소 40퍼센트 이상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 중 최소 35 퍼센트를 달성하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비티유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